송중기 '2016 아시아태평양 스타 어워즈' 대상

송중기가 2일 열린 '2016 아시아태평양 스타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다. 출연작 KBS 2TV '태양의 후예'는 올해의 드라마상을 수상했다. 송중기는 이날 베스트 커플상, 베스트 아시아태평양 스타상까지 품에 안으며 4관왕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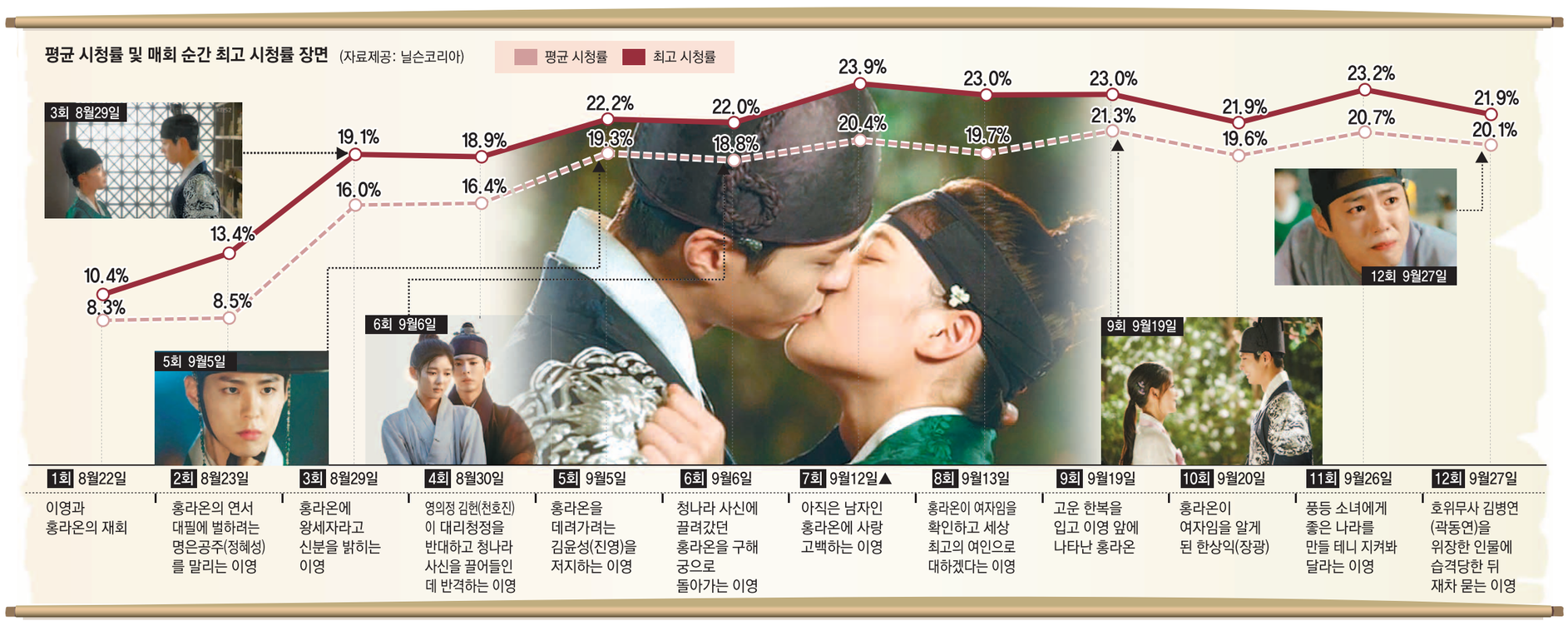
구르미 신드롬…'평균 20세' 박보검·김유정이 해냈다

안방 달구는 '구르미' 열풍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이 박보검과 김유정의 열연에 힘입어 월·화요일 밤하늘을 밝게 빛내고 있다. 극중 이영과 홍라온인 이름을 따 '영온커플'이라 불리는 두 사람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마냥 풋풋해진다. 그렇다고 이들의 연기력이 덜 익은 것도 아니다. 캐릭터 소화력이 뛰어나 60분이 금방 지나간다. 누가 뭐라 해도 하반기 최고 인기작임에 틀림없다. 원작과 차별화, 화려한 의상 등도 보는 재미를 더한다.

어린 연기자들·아류작 우려 불식
시청률 20% 넘어서며 '고공행진'

풋풋함은 물론 감정연기도 완벽
'해품달' 뒤이을 한류사극 기대감



연기자의 짧은 경험, 원작의 존재감, 아류작…. 우려는 많았다. 하지만 중반에 접어들면서 시청률 20%를 넘어섰고, 우려는 말끔히 씻겼다. 그리고 그 중심에 두 남녀주인공이 있다. KBS 2TV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의 박보검(23)과 김유정(17)이다.

드라마가 후반부로 치달아가면서 두 사람에 대한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박보검은 '박보검 매직'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하는 인기를 모으고 있다. 김유정도 상큼한 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이 '대박' 성적표를 받아들인 것에 방송가도 적잖이 놀란 눈치다.

●우려를 딛고…

방송 전만 하더라도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두 주인공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실제 현재 방송 중인 지상파 방송 드라마 가운데 남녀주인공의 나이가 가장 어리다.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활약한 박보검은 '응답하라' 시리즈의 주연들이 차기작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내는 징크스를 재현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받기도 했다.

또 원작인 웹소설에 대한 팬 층성도가 여전히 높고, 남장여자를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자칫 '성균관 스캔들'의 아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박보검은 이 모든 우려를 떨쳐냈다. 극중 왕세자 이영 역을 열연하며 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때론 '날라리' 왕세자의 코믹함 속에서 카리스마를 놓치지 않았고, 김유정과는 달달한 로맨스로 시선을 끌고 있다. 반듯한 인성까지 알려지면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김유정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아역 출신으로 박보검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지만 아직 미성년이어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는 남장여자라는,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변신의 모습까지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감정연기를 완벽하게 펼쳐내며 우려가 기우임을 입증했다. 앞선 남장여자 캐릭터 박민영(2010년 KBS 2TV '성균관 스캔들'), 문근영(2008년 SBS '바람의 화원')과는 또 다른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시청자를 안방으로 끌어들였다.

●한류의 새 바람?

이들의 활약으로 2012년 MBC '해를 품은 달' 이후 청춘 팩션 사극이 다시 한 번 인기를 모으면서 해외 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구르미 그린 달빛' 판권은 중국에서 높은 가격을 받지 못했지만 중국 망고TV에서 총 약 1억9000만뷰(3일 오후 기준)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지 매체 소후과기도 지난달 25일 "'금한령(禁韓令)'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구르미 그린 달빛'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지역과 미국에도 판권이 판매돼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조선 패셔니스타 '영온커플'

이영 곤룡포·침소복 등 다양한 변주
홍라온 핑크빛 한복 여성미 빛 발해

'영온커플'(사진)은 조선시대 패셔니스타라 해도 손색이 없다. 비결은 'T.P.O(Time·Place·Occasion)'다.

왕세자 이영(박보검)과 내관 홍라온(김유정)은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춰 의상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사극의 의상과 장신구가 이 정도로 눈길을 끈 경우는 흔치 않다. 물론 두 사람의 완벽한 소화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의상감독인 이진희 한복 디자이너는 왕세자라는 위상과 예술을 좋아하는 이영의 성격을 최대한 드러내려 했다. 왕의 곤룡포와 침소복, 무복에 평거복을 "다양한 변주"한다. 빨강과 남색에만 갇히지 않고 연보라, 하늘, 민트, 분홍 등 밝은 톤으로 깊이감과 무게감을 주면서도 청년의



감성을 유지한다. 홍라온이 여성으로서 이영 앞에 섰을 때 입은 옅은 핑크빛 한복은 여성의 매력이 가장 빛을 발했다.

이 감독은 "대부분 박보검을 위한 디자인"이라며 "의상을 통한 캐릭터의 감정 표출을 의도했고 이를 박보검이 잘 소화했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의 SNS에 "옷에 담으려던 메시지를 한 몸인 듯 완벽하게 다 살려낸 연기자는 처음인 것 같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을 더욱 눈부시게 해주는 건 장신구다. 특히 박보검이 극중 착용하는 8개의 상투관은 100% 수공예 작품. 한 개를 만드는 데 약 보름이 소요되며, 박보검 시착 후 수정과 보완해 완성된다. 기존 디자인과 겹치지 않게 하는 데 꽤 많이 공을 들였다.

장신구 담당 김성은 실장은 "극중 왕세자가 나이가 어려 고루함을 피하기 위해 금색보다 은색을 주로 활용했다"며 "'박보검을 위한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을 위해 디자인하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 월요병 날린 '심쿵' 대사들

같은 대사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시청자의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다. '영온커플'이라면 '헬요일(hell·지옥+월요일)'도 무방하다. 이들의 달콤한 고백을 들으며 잠들 수 있다면, '월요병' 따위 두렵지 않다.

●이영 버전

"불허한다, 내 사람이다."(9월5일 5회)=장난기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박력 넘치는 모습. 사람의 촉은 역시 무섭다. 여자인 홍라온의 정체를 이때부터 알아차리고 있었을까.

"내가 한 번 해보려 한다. 그 못된 사랑."(9월12일 7회)=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어떤 장벽이 있으랴. 설령 상대가 남자라도 좋아하는 마음은 변함 없다.

"제발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9월19일 9회)=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이리도 애절하게, 간절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홍라온 버전

"저하께서 참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닌 백성을 위해."(9월6일 6회)=내관 신분인 자신 때문에 정세를 그르칠까 걱정의 한 마디에 왕세자가 냉정함을 되찾는다. 연모의 힘일까.

"내관으로 저하의 곁에 있을 땐, 10의 1쯤은 쓸모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9월19일 9회)=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사랑의 감정을 억누른 채,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제 손 절대 놓지 마십시오."(9월27일 12회)=이제 '직진'만 한다. 상대가 놓지 않는 이상 먼저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여인의 적극적인 고백이라 더 애틋하다.

왕세자 이영은 원래 여성안면인식장애

■ 원작과 다른 점은?

홍라온 비밀 들키는 과정도 달라

'구르미 그린 달빛'은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 드라마의 인기로 소설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연재를 시작한 웹소설은 최근 조회수 5000만건을 넘었고, 2015년 출간된 책(전 5권)도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했다. 웹소설 자체도 연재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큼 드라마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131회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18회의 드라마로 만드는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많이 바뀌었다. 드라마 제작사 KBS미디어 제작총괄 유상원 PD에 따르면 이영(박보검), 홍라온(김유정), 김윤성(진영) 등 주요 캐릭터 변화가 크게 달라진 점이다. 극적 효과를 위해서다.

원작에서 왕세자 이영은 원작에서 여자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궁녀들의 얼굴은 물론 청나라 사절단으로 온 공주의 얼굴까지 구별하지 못하는 인물. 하지만 운명적으로 홍라온의 얼굴만 알아보면서 로맨스를 풀어간다.

드라마에서는 이 장치를 삭제하고도 홍라온과 알콩달콩한 로맨스를 풀어냈다. 이영에게 시종일관 '들이대는' 청나라 공주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먼 훗날 세자빈이 되는 조하연(채수빈)게 입혀 하나의 인물로 만들었다.

누리꾼이 가장 관심을 보낸, 홍라온이 여자라는 사실을 이영이 알게 되는 과정도 다르다. 원작에서 홍라온은 김윤성의 손에 이끌려 내관이 아닌 단아한 여인의 옷차림으로 풍등제에 나섰다 이영에게 여인이라는 사실을 들킨다. 이영은 이를 모른 척하고 "네가 무엇이든 상관없다"며 사랑을 고백한다.

드라마에서는 이영이 쓰개치마를 뒤집어쓰고 있는 홍라온의 얼굴을 유심히 보려는 찰나 김윤성이 몸으로 가로막는다. 이후 이영은 '남자' 홍라온에 대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연서로 마음을 고백하려다 홍라온이 몰래 여인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또 원작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고 '농도'짙은 로맨스를 선보이지만, 드라마에서는 키스신 등으로 가볍게 처리했다.

홍라온의 가족관계와 내시가 된 사연도 다르다. 원작에서는 엄마, 여동생과 함께 사는 홍라온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남장을 하게 되고, 병든 여동생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내시가 된다. 드라마에서는 여동생 캐릭터를 과감히 빼고, 엄마와 어릴 적 시장에서 헤어진 후 양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내시가 된 것도 양아버지가 진 빚 때문이다.

이영의 호위무사 김병연(곽동연)과 김윤성은 원작에서 이영의 어릴 적 동무로, 김유정을 연모하게 되면서 사각관계에 놓인다는 점도 드라마와는 다른 설정이다.

이 같은 차이 속에서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현재 드라마는 홍라온이 홍경래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제작진은 이후 과정을 어떻게 그려내 결론으로 마무리할지 고민 중이다. 다만 원작이 해피엔딩인 것처럼 드라마도 "해피엔딩"이라 귀띔하면서도 "그 과정은 원작과 다르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송혜교, 내달 13일 데뷔 20주년 팬미팅



배우 송혜교(사진)가 11월13일 데뷔 20주년 팬미팅을 갖는다. 자신의 생일(11월22일)을 팬들과 함께 자축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앞서 2005년 데뷔 10주년 기념 팬미팅을 열어 이번 무대에 대한 아시아권 팬들의 참여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게스트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잘있거라 부산항' 원로가수 백야성 별세

원로가수 백야성(문석준)이 2일 오후 9시40분쯤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뇌경색으로 1년6개월가량 투병하다 이날 숨을 거뒀다. 1934년생 서울 태생으로, 1958년 공군에 복무하던 중 '무정타향' '마도로스 부기' 등으로 오아시스레코드 전속 가수가 됐다. 1960년대 초 '잘있거라 부산항' '항구의 0번지' '마도로스 도돔바' 등을 히트시켰다. 제목에 '마도로스'가 들어간 노래가 30여곡이나 돼 '마도로스 가수'로 불리기도 했다.

法 "입국금지 조치 위법 아니다"…유승준 패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9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원고(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심수봉, 역삼동 건물 공매…세금 체납 추정

가수 심수봉의 서울 역삼동 건물이 공매에 부쳐진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과 지상 2층으로 대지면적 350.2m², 건물면적 866.02m²에 감정평가액은 40억2000여만원이다. 심수봉의 기획사와 카페, 자택, 지하공연장으로 이뤄졌다. 공매를 의뢰한 기관이 서울 역삼세무서인 것으로 미루어 공매 이유는 세금 체납으로 추정된다. 또 은행의 근저당설정과 공연기획사가 3억 원대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공매는 5일까지 진행된다.

앱스토어 게임 매출 랭킹

10월 3일 기준

순위	게임명	서비스사
1	모두의 마블 for kakao	Netmarble Games
2	세븐나이츠 for Kakao	Netmarble Games
3	뮤오리진	Webzen Inc.
4	붉은보석2	Four Thirty Three
5	FIFA ONLINE 3M	NEXON Company
6	더 킹 오브 파이터즈 for Kakao	FingerTips
7	아이러브니키 for Kakao	Kakao Corp.
8	프렌즈팝 for Kakao	NHN Pixelcube
9	별이 되어라! for Kakao	GAMEVIL
10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BANDAI NAMCO Ent.